

봉 축 사(2차 수정안)

꽃잎에 맺힌 이슬은 붉은 구슬처럼 빛나고, 푸르른 신록이 마치 비단을 펼친 듯이 온 세상을 장엄하고 있습니다. 봄별이 산과 골짜기를 가리지 않고, 나무와 풀을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천지의 이치는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 없으니 삼라만상의 모습이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한 불성(佛性)의 소유자이며, 모두가 존귀하고 스스로 온전하여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인류에게 전하는 깨침의 사자후입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서는 이렇게 존재의 실상을 밝혀 주셨지만 세간과 중생들은 언제나 상(相)을 내는 일로 분주합니다. 서로 장벽을 만들고 편을 갈라 반목하면서 스스로 그 속에 갇혀버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들은 갈등과 불화로, 국가와 민족은 대립과 전쟁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공멸의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온갖 차별하는 마음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시비분별을 멈추면 본래부터 완전한 자성(自性)이 모습을 드러내고, 자성이 청정한 줄 알게 되면 순간순간 대하는 온 중생을 부처로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본래 면목을 드러내니 누구 하나 주인공 아님이 없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이치를 바로 알면 세상의 평화는 먼 미래가(또는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열과 갈등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아픔이 없는 사회,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공존의 시대를 만들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기도 합니다.

세상의 풍요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의 땀에서, 이들과 공생하려는 기업
가의 넉넉한 어깨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뿌린 대로 거두는 농민의
따뜻한 웃음에서, (서로 다른 인종과 종교를 대하는 따뜻한 웃음에서,=삭제)
상처받은 이웃을 얼싸안는 시민들의 아름다운 손길에서 우리는 부처
의 세상을 봅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차이
를 인정하고 차별을 없애며 모든 이들을 부처로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나아가=삭제) 사회의 온갖 갈등과 남북의 대립, 어려운 국가 상황도
이러한 부처의 마음으로 풀어나가면, 국민의 행복과 국토의 안녕, 지구
촌 공동체의 평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차별과 갈등의 사회를, 상생과
화합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삭제해도 무방)

(각기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포용하고 분단된 민족의
화해를 이끌어 낼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삭제)
더불어 어느 누구도 차별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주인공으
로 섬기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지도자가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
리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평화와 행복의 세상을 열어주신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우리 모
두가 주인공임을 알려주신 날입니다. (고통 받는=삭제) 모든 중생이 (차
별을 벗고 일어서=삭제) 기뻐하는 (오늘은=삭제) 참으로 빛나는 날로 만
들어 갑시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우
리 모두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61(2017)년 5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